

1면 ‘학사일정’에서 이어짐

하지만 학교가 내놓은 학사 운영 일정에 허점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윤아(국어국문학 2019) 씨는 기말고사 시행 방식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시험을 본다면 공정한 평가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같은 수업 안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면 실제로는 서로 다른 기말 시험을 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캠 학사지원팀은 “절대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강생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제캠 학사지원팀 또한 “교수님들께 최대한 평가에 차등이 없도록 해달라고 안내한 상태”라고 전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기말고사만을 이유로 학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거주와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곽 씨는 “기말고사가 대면으로 치러진다면 지방 거주 학생들은 거주지를 구해야 하는데, 이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지윤(사회학 2018) 씨 또한 “시험기간 동안 머무를 숙소를 구해야 한다”며 “기차나 숙소는 많은 사람이 거쳐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캠 학사지원팀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기숙사가 부족해 숙소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제캠 우정원 서명옥 행정계장은 “기말고사 기간에 등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임시 입사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거주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7일로, 주 단위로 신청을 받는다. 서 계장은 “우정원과 제2기숙사 학생이 입사한 후 공실 인원 내에서 수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치르는 중앙대학교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을 배려해 기말시험 기간 생활관 숙소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익대학교는 기말고사를 총 3주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홍익대학교 교무처장은 “안전을 위해 기말고사 시행일을 분산했다”며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대면시험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캠 총학생회는 “이태원과 동대문구에서 감염 사례가 나왔다”며 “기말고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 시험이 필수적인 강의는 최소 2주 전 공지한 후 진행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까지 학사지원팀이 공지한 사항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바뀔 공간이 크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하고, 우리학교 재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통제를 완화하긴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캠 학사지원팀의 공식 입장은 “현재로서는 일정에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면 수업을 시행하고자 했던 교강사들이 이번 사태로 대면 수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태원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학가는 대면 수업 여부를 두고 다시 고심하는 분위기다. 국민대학교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지난 11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대면 수업을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국민대학교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급반전하고 있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양대학교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던 이론 수업의 대면 수업 시작 가능일을 6월 1일 이후로 연기했다. 한양대학교 교무처장은 지난 12일 “클럽 집단감염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대면수업 실시 일정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 ‘등록금’ 논의 1학기 종강 이후로

## ‘대학혁신’ 예산 활용, 교육부 거부

〈대학혁신지원사업〉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등록금 관련 논의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양 캠퍼스(양캠) 총학생회(총학)가 학교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등록금책정위원회(등책위)를 양보했음에도 학교 측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4월 30일 새로 선임된 학무부총장은 그동안 부총장의 부재를 이유로 논의를 미뤘은 학생들의 요구에 즉각 응답해달라”고 요구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 또한 지난 3일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쿠티비 KHU TV’를 통해 “등록금 조정에 대한 논의 및 알권리 보장은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반 학기 이상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학교 측과 양캠 총학은 ‘등록금 재논의’와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를 논의해온 바 있다. 서울캠 총학은 3월 17일부터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 및 책정 재논의’를 요구하며 본관 총장실 항의 방문, 등책위 개최 촉구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4월 23일에는 청량리역에서 ‘코로나19 대학가 대책 마련을 위한 동대문구 3개 대학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은 ‘등책위 개최’, ‘부총장 선임’ 등으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가 조율을 통해 소통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제캠에서도 등록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3월 27일 부총장 주재 회의에 참석한 총학은 학습권 보장 및 등록금 인화에 대한 학교 측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현재 시점에서 등록금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비

대면 수업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는 1차 입장을 내놓았다.

3월 30일 국제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비대면 수업의 질적 향상만으로는 등록금 문제의 근본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4월 2일 부총장 주재 회의에서 재차 등록금 문제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날 우리학교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등록금에 관해 재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2차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중운위는 공통으로 쓰이는 금액과 단위별 커리큘럼에 쓰이는 금액을 파악했다. 또 2020학년도 자금예산 편성안을 분석, 등록금 운용 방식과 단과대학별 등록금 운용 방식을 공유해 예산 항목에서 관리 운영비에 속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4월 20일 국제캠 소통위원회에서 국제캠 총학은 논의한 자료를 토대로 학교 측에 등록금 재논의 시기 확정을 요구했다. 이날 우리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비대면 수업 플랫폼 계약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해 대학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고

려되고 있어 교육부 정책 결정 이후 논의가 가능하다”는 3차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장학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거절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입장 표명 이후 지난 7일 국제캠 부총장 주재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 총학은 “늦어도 6월초에 등록금 재논의에 관한 공식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우리학교는 “재논의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는 4차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는 1학기 종강 이후 예결산이 완료되고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학교가 “재정지원 없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예산변동의 폭도 크기 때문에 1학기가 끝난 뒤 내역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양캠 총학 역시 1학기 예결산을 바탕으로 학교 측과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학교
3월 1일		재논의 첫 요청	
17일	재논의 요구		
20일	총장실 항의 방문		
23일	ㄱ	협조 요청문 전달	
25일	본관 릴레이 피케팅	기자회견	
26일			
27일	ㄴ	부총장 주재 회의	1차 입장
4월 2일		부총장 주재 회의	2차 입장
20일		소통위원회	3차 입장
23일	합동 기자회견		
5월 4일	입장 촉구 성명서 발표		
6일	소통위원회		
7일		부총장 주재 회의	4차 입장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 도전

꿈에 도전하라!  
당당한 자신감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61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62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20년 3월 16일 ~ 6월 5일
- 방법 : 인터넷www.armyofficer.mil.kr [학군사관 모집안내]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6. 13. (토), 합격자 발표 : 7. 10. (금)  
- 2차 면접평가 : 9. 7. (월) ~ 9. 25. (월)  
합격자 발표 : 10. 16. (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12. 4. (금)

학군사관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ROTC)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문의처

지원대학 학군단

서울 : 02-961-0085~6  
국제 : 031-201-3271~4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